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내적 통제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최은경** · 임정하***

초 록

본 연구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내적 통제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청소년 457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이용해 평균, 표준편차, 반복측정 이원변량분석, t 검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내적 통제성 및 사회불안의 일반적인 경향과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내적 통제성이 매개효과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때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아버지와 어머니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심리적 통제 지각에서 청소년의 성별과 부모의 성별 간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남학생 집단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보다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를 더 높게 지각한 반면, 여학생 집단은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보다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내적 통제성 수준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고, 사회불안 수준은 여학생 집단이 남학생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내적 통제성을 매개로 하여 사회불안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청소년기 사회불안의 예방 및 중재를 위한 기초자료로 상담 및 교육현장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부모의 심리적 통제, 내적 통제성, 사회불안, 청소년

* 이 연구는 2017학년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의 일부임.

** 고려대학교 대학원 생활과학과 아동학전공 석사과정, 제1저자

***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수, 교신저자, jhlim@korea.ac.kr

I. 서 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최초의 환경인 부모와의 관계를 시작으로 타인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점차 자신이 속한 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습득하고 내면화하면서 사회에 적합한 구성원이 되어간다. 이처럼 사회적 존재인 인간은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불안을 경험하게 되는데, 최근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불안(social anxiety)은 실재나 예측 가능한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으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거나 받게 될 것을 예상하여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한다(Schlenker & Leary, 1982). 사회적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긴장과 불안을 느끼는 것은 많은 사람이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또한, 적당한 수준의 불안은 개인의 동기를 자극하고, 수행을 향상시키는 등 긍정적 측면이 있다(박효정, 2015). 그러나 지속적이고 과도한 사회불안은 개인의 심리적 고통뿐 아니라 대인관계나 일상적인 사회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Kashdan & Steger, 2006). 또한, 사회불안은 우울증 등 다른 정신과적 질병과의 공병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Verduin & Kendall, 2003), 임상적 형태인 사회불안장애(social anxiety disorder)로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청소년기는 사회적 관계의 폭이 확장되는 시기로 사회적 평가 상황 및 주변의 부정적 평가에 노출될 기회가 아동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이에 따라 사회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Detweiler & Albano, 2001). Van Ameringen 등의 연구(2003)에 의하면 사회불안을 겪는 청소년들은 학업성취능력이 또래보다 부진하고, 낮은 자존감과 또래 문제 및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기의 사회불안은 심리·사회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회적 기술의 발달을 저해하고, 초기에 사회불안에 대한 적절한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성인이 되었을 때 더 심각한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다(오경자, 양윤란, 2003). 따라서 청소년이 사회불안을 느끼는 원인과 그 심리적 기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존에는 자의식(강예모, 김정규, 2012), 자기효능감(이상주, 2011), 행동억제기질(오경자, 양윤란, 2003), 부모의 양육 행동(서경현, 신현진, 문지영, 2010; McLeod, Wood & Weisz, 2007), 또래 관계(강민지, 김광웅,

2008), 외상경험(송은영, 하은혜, 2008; Hackmann, Clark & McManus, 2000) 등이 연구되었다. 특히 사회불안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 행동이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기 자녀가 부모로부터 정서적인 독립과 자율을 추구하면서도 여전히 부모에게 의존하고 부모의 애정을 갈구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Morrissey & Werner-Wilson, 2005). 따라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 관련 변인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부모의 양육 행동이 청소년기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다 심층적으로 규명하려는 시도들이 늘어나면서, 양육 행동의 세분화된 차원인 심리적 통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김소연, 2014; 박성연, 이은경, 2010; 조은주, 이은희, 2013; Davidov & Grusec, 2006; Nanda et al., 2012). 부모의 심리적 통제란 자녀의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영역에 개입하려는 부모의 시도이다. 이러한 심리적 통제는 죄의식 유발, 애정 철회적 행동 또는 자녀와의 애착이나 유대관계를 조정하는 등의 심리적인 수단을 통하여 이루어진다(Barber, 1996).

Barber(1996)에 의하면 자녀가 부모로부터 두려움이나 죄의식 등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많이 느끼게 되면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게 되고, 특히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의 부정적 평가를 두려워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하였다. 또한, 여러 선행연구는 부모의 지나친 통제와 간섭은 청소년의 우울, 불안, 위축 등의 내재화 문제 및 부정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그들이 독립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남정민, 성현란, 권선영, 2014; Nanda et al., 2012). 안명희(2010)는 부모로부터 정서적, 언어적 침해 행동을 자주 경험한다고 지각할수록 자녀는 무력감을 많이 느꼈고, 자신이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부적절감이 증가해 불안 수준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의 사회불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한편 심리적 통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김희영, 박성연, 2008; 전숙영, 2007; Reed, Goldstein, Moris & Keyes, 2008),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기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Stolz(2005)는 부모의 양육 행동이 자녀의 성별에 따라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아 심리적 통제를 아버지와 어머니로 구분하여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사

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여러 연구자들은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요인을 강조하였다. Clark와 Wells(1995)의 인지 모델 이론에 의하면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수행에 있어서 과도하게 높은 사회적 기준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 신념, 즉 부정적 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국내에서 수행된 사회불안 관련 메타분석 연구(홍영근, 이경숙, 2013)에서 사회불안을 일으키는 변인을 인지, 정서, 행동, 환경의 4개의 범주로 분류한 결과, 이 중 인지적 요인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인지적 요인은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불안의 원인과 그 심리적 기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지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되는 인지적 요인으로 내적 통제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내적 통제성은 인과적 원인지각에 대하여 개인이 가지는 신념(Kim, Sandler & Tein, 1997)으로 행동 및 사건의 원인을 자신의 능력과 노력 등 내부요인으로 지각하여 자신의 통제 가능성을 믿는 것이다(Rotter, 1966). 선행 연구에 따르면, 내적 통제성이 높은 사람들은 생활 전반에서 적응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 수준이 낮았다(유안진, 민하영, 2001). 반면에 내적 통제성이 낮은 사람들은 우울 및 불안 등의 심리적 문제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한지현, 이진숙, 2007). 이는 자신의 상황이나 행동이 외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지각하면, 스스로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볼 때, 내적 통제성은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영향력을 미치는 인지적 요인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한편 여러 연구자들은 심리적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관련 요인의 설명력이 낮아 부모 관련 요인만으로 불안 및 우울 등의 심리적 부적응을 예측하기엔 부족하다고 보고 매개변인이 작용할 가능성을 언급했다(안명희, 2010; 이소미, 2002). Nanda 등(2012)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불안의 관계는 특정한 인지적 요인을 통해 매개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비합리적 신념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 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였고(조은주, 이은희, 2013), 불안 통제감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 불안 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였으며(김소연, 2014), 통제소재가 부모의 양육 행동과 우울 및 불안을 부분적으로

매개하는(이소미, 2002)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 행동이 자녀로 하여금 인지적 편향을 발달시켜 불안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매개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인지적 변인인 내적 통제성이 매개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아직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내적 통제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내적 통제성은 과거의 경험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긍정적 및 부정적 강화 정도는 아동의 내적 통제성 발달에 영향을 준다(Rotter, 1966). 또한, 청소년이 부모의 양육 행동을 애정적이고 자율적으로 지각할수록 내적 통제성이 높았고, 적대적이고 통제적으로 지각할수록 내적 통제성이 낮았다(전민영, 2009; 조은주, 이은희, 2013).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높을수록 자신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자기 행동의 결과로 지각하기보다는 외부요인에 의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커지기 때문에 내적 통제성을 발달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내적 통제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내적 통제성을 매개로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적 통제성을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요인으로 가정해 보고자 한다.

한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기효정, 홍혜영, 2016; 양재원, 양윤란, 오경자, 2008; 임정하 외, 2015; 장호연, 장진이, 2017; Nelson & Crick, 2002; Rogers, Buchanan & Winchell, 2003; Rose & Rudolph, 2006), 성별에 따라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내적 통제성 및 사회불안의 차이를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내적 통제성 및 사회불안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 청소년의 내적 통제성 및 사회불안 수준과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내적 통제성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담 및 교육현장에 유용

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내적 통제성 및 사회불안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사회불안의 관계를 내적 통제성이 매개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도에 소재한 3개 중학교와 3개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청소년 457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은 남학생이 219명(47.9%), 여학생이 238명(52.1%)이었다. 연구대상의 평균연령은 16.64세($SD = 1.11$)이었고, 중학교 2학년 96명(21.0%), 중학교 3학년 107명(23.4%), 고등학교 1학년 120명(26.3%), 고등학교 2학년 134명(29.3%)이었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아버지: 44.0%, 어머니: 45.3%). 아버지의 직업은 사무 관리직이 155명(33.9%)으로 가장 많았고, 판매 및 서비스직 67명(14.7%), 기타 63명(13.8%) 순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직업은 가정주부가 143명(31.3%)으로 가장 많았고, 사무 관리직 78명(17.0%), 판매 및 서비스직 62명(13.6%) 순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부모의 심리적 통제 척도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측정하기 위해서 Soenens와 Vansteenkiste (2007)가 개발한 Domain-specific Assessment of Psychological Control(DAPC)을 박성연과 이은경(2009)이 번안한 한국판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전체 17문항으로 의존

지향 심리적 통제 9문항,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는 자녀가 부모에게서 벗어나 독립적인 행동을 하고자 할 때 부모가 불안을 느끼게 됨에 따라 행하게 되는 통제적 양육방식을 측정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어떤 일을 아버지(어머니)에게 털어놓으려 하지 않으면 나에게 실망감을 나타내신다’ 등이 있다.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부모가 세운 성취기준을 자녀가 따르게 하려고 부모가 행하는 통제적 양육방식을 측정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남보다 뛰어난 때만, 나를 다정하게 대해주신다’ 등이 있다.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 척도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척도는 같은 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식 5점 척도로 측정되며, 각 하위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해당 심리적 통제를 많이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박성연과 이은경(2009)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구인타당도를 검증하였고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 값은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 .89,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91로 나타났다.

2) 내적 통제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내적 통제성을 측정하기 위해 기존의 척도들을 참고하여 민하영(1998)이 개발한 내적 통제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20문항으로 행동의 결과에 대한 원인을 개인의 능력 또는 노력과 같은 개인 내부요인으로 지각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만약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내가 노력했기 때문이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그렇다’ 4점까지 Likert식 4점 척도로 측정되며, 역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총점이 높을수록 내적 통제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민하영(1998)은 척도를 개발하면서 구성 타당도와 준거 관련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 값은 .76으로 나타났다.

3) 사회불안 척도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사회불안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LaGreca와 Lopez(1998)가 개발한 청소년용 사회불안척도(Social Anxiety Scale for Adolescents: SAS-A)를 양재원 등(2008)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한국판 청소년 사회불안 척도(Korean version of

Social Anxiety Scale for Adolescents: K-SAS-A)'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관한 8문항, 새로운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안에 관한 5문항, 일반적 사회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안에 관한 5문항으로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타인에 의해 자신이 관찰되거나 부정적으로 평가받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 걱정 불안 등을 측정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있다고 걱정한다' 등이 있다. 새로운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안은 친숙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사회적 회피 및 불안을 측정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주위에 사람들이 몇 명 있으면 긴장한다' 등이 있다. 일반적 사회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안은 새로운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겪게 되는 불안, 걱정, 불편감 등을 측정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잘 아는 사람과 있어도 수줍음을 탄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식 5점 척도로 측정된다.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18점에서 9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불안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양재원 등(2008)은 척도를 개발하면서 구성타당도와 수렴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 값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90, 새로운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안 .80, 일반적 사회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안 .77, 전체 .91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조사에 앞서 2017년 3월에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중·고등학교 학생 90(남 47명, 여 43명)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에서의 연구 과정 및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절차상의 문제 여부, 소요시간, 문항의 이해정도 등을 검토하여 설문지를 수정·보완한 후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2017년 4월에 서울 및 경기도에 소재한 6개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4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자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담임교사를 만나 연구의 목적, 질문지 실시방법 및 주의사항, 예상 소요시간 등에 관해 설명을 한 후 질문지를 전달하였다. 또한 본 연구자 또는 교사가 연구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자발적 의사에 따른 연구 참여와 연구결과에 대한 비밀 보장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학생들의 동의를 얻은 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그 자리에서 배부 및 회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참여 학

생과 교사에게는 감사의 표시로 답례품을 전달하였다. 회수된 질문지 가운데 부실 기재되거나 미완성된 31부를 제외하고 457부(93.6%)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내적 통제성 및 사회불안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또한, 청소년과 부모의 성별에 따른 심리적 통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정 이원변량분석을,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내적 통제성 및 사회불안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증을 하였다. 셋째,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내적 통제성 및 사회불안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끝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내적 통제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분석 방법에 따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하기에 앞서 설정한 모형의 가정이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VIF 계수와 공차한계, 잔차의 독립성을 나타내는 Dubin-Watson 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VIF 계수는 1.40, 공차한계는 .71로 나타났으며, Dubin-Watson 계수는 1.75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내적 통제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Sobel(1982) 검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성별에 따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내적 통제성 및 사회불안

부모의 심리적 통제, 내적 통제성 및 사회불안의 일반적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또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 청소년의 내적 통제성, 사회불안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정 이원변량분석과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 대하여 청소년의 성별과 부모의 성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반복측정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청소년 성별의 주효과가 유의한 반면($F=4.35$, $p<.05$), 부모 성별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 청소년의 성별과 부모의 성별 간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F=10.37$, $p<.01$). 구체적으로, 남학생 집단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M=1.70$, $SD=.54$)보다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M=1.77$, $SD=.57$)를 더 높게 지각한 반면, 여학생 집단은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M=1.79$, $SD=.53$)보다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M=1.87$, $SD=.60$)를 더 높게 지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내적 통제성은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끝으로, 사회불안 전체에서 여학생 집단의 평균($M=2.71$, $SD=.69$)이 남학생 집단의 평균($M=2.48$, $SD=.65$)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3.67$, $p<.001$). 또한, 사회불안 중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요인에서 여학생 집단의 평균($M=2.73$, $SD=.80$)이 남학생 집단의 평균($M=2.37$, $SD=.78$)보다 높았다($t=-4.92$, $p<.001$). 이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더 높게 지각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안 요인과 일반적 사회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안 요인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표 1

청소년과 부모의 성별에 따른 심리적 통제에 대한 반복측정 이원변량분석

	<i>df</i>	<i>SS</i>	<i>MS</i>	<i>F</i>
청소년의 성별(A)	1	2.13	2.13	4.35*
부모의 성별(B)	1	.001	.001	.007
A × B	1	1.52	1.52	10.37**
오차	455	66.71	.15	

* $p < .05$.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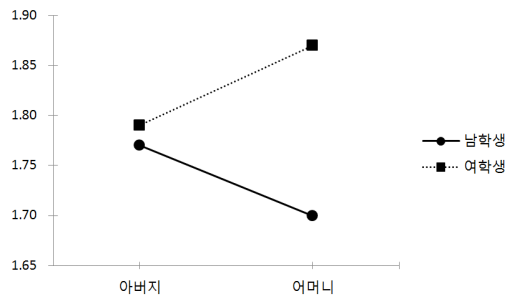


그림 1. 심리적 통제 지각에서 청소년 성별과 부모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

표 2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내적 통제성 및 사회불안의 평균, 표준편차와 독립표본 t 검증

		남학생 (<i>n</i> =219)	여학생 (<i>n</i> =238)	<i>t</i>
		<i>M</i> (<i>SD</i>)	<i>M</i> (<i>SD</i>)	
내적 통제성		3.00 (.33)	2.96 (.29)	1.60
사회불안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2.37 (.78)	2.73 (.80)	-4.92***
	새로운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안	3.00 (.79)	3.14 (.85)	-1.81
	일반적 사회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안	2.15 (.71)	2.26 (.79)	-1.63
	전체	2.48 (.65)	2.71 (.69)	-3.67***

** $p < .01$. *** $p < .001$.

2.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내적 통제성의 매개효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사회불안의 관계를 내적 통제성이 매개하는지 살펴 보기에 앞서,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남녀 청소년 모두에서 사회불안은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남: $r=.39$, $p<.01$; 여: $r=.37$, $p<.01$) 및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남: $r=.32$, $p<.01$; 여: $r=.37$, $p<.01$)와 중간정도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다음으로, 사회불안은 내적 통제성과 강한 부정 상관을 보였다(남: $r=-.50$, $p<.01$; 여: $r=-.43$, $p<.01$). 마지막으로, 내적 통제성은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남: $r=-.41$, $p<.01$; 여: $r=-.39$, $p<.01$) 및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남: $r=-.32$, $p<.01$; 여: $r=-.36$, $p<.01$) 모두와 중간정도의 부정 상관을 보였다.

표 3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내적 통제성 및 사회불안 간의 관계

		1	2	3	4	5	6	7
심리적 통제	1. 아버지	-	.55**	-.41**	.43**	.16*	.36**	.39**
	2. 어머니	.54**	-	-.32**	.29**	.20**	.33**	.32**
	3. 내적 통제성	-.39**	-.36**	-	-.45**	-.37**	-.46**	-.50**
사회 불안	4.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34**	.33**	-.44**	-	.53**	.63**	.89**
	5. 새로운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안	.25**	.27**	-.22**	.52**	-	.65**	.81**
	6. 일반적 사회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안	.34**	.35**	-.41**	.60**	.65**	-	.85**
	7. 전체	.37**	.37**	-.43**	.88**	.82**	.85**	-

주. 남학생집단($n=219$)의 상관계수는 대각선 위쪽, 여학생집단($n=238$)의 상관계수는 대각선 아래쪽에 제시하였음.

* $p<.05$. ** $p<.01$.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내적 통제성의 매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의 모델에 근거하여 세 단계로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매개변인인 내적 통제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종속변인인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매개변인인 내적 통제성을 동시에 독립변인으로 회귀식에 투입하여 종속변인인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세 단계의 절차를 걸쳐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거나 사라지는지를 알아봄으로써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표 4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적 통제성의 매개효과

매개효과 검증단계		<i>B</i>	β	<i>adj R</i> ²	<i>F</i>
남학생 집단 (<i>N</i> = 219)	1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 → 내적 통제성	-.24	-.41***	.17	44.76***
	2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 → 사회불안	.44	.39***	.15	38.71***
	3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 → 사회불안	.25	.22**	.28	43.35***
	내적 통제성 → 사회불안	-.81	-.40***		
여학생 집단 (<i>N</i> = 238)	1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 → 내적 통제성	-.21	-.39***	.15	42.25***
	2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 → 사회불안	.48	.37***	.13	36.91***
	3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 → 사회불안	.30	.24***	.23	35.94***
	내적 통제성 → 사회불안	-.82	-.34***		

p*<.01. *p*<.001.

먼저, 청소년의 성별로 표본을 분리하여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 간의 관계를 내적 통제성이 매개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남학생 집단의 경우, 첫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가 매개변인인 내적 통제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게 나타났다($\beta = -.41$, $p < .001$).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가 종속변인인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β

$=.39, p<.001$).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동시에 투입한 세 번째 단계에서는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beta=.22, p<.01$)와 내적 통제성($\beta= -.40, p<.001$)은 사회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와 내적 통제성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은 줄어들어($\beta=.39, p<.001 \rightarrow \beta=.22, p<.01$) 남학생의 내적 통제성은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Sobel(198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내적 통제성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4.64, p<.001$).

여학생 집단의 경우, 첫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가 매개변인인 내적 통제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게 나타났다($\beta= -.39, p<.001$).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가 종속변인인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게 나타났다($\beta=.37, p<.001$).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동시에 투입한 세 번째 단계에서는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beta=.24, p<.001$)와 내적 통제성($\beta= -.34, p<.001$)은 사회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와 내적 통제성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은 줄어들어($\beta=.37, p<.001 \rightarrow \beta=.24, p<.001$) 여학생의 내적 통제성은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Sobel(198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내적 통제성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4.21, p<.001$).

표 5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적 통제성의 매개효과

매개효과 검증단계		<i>B</i>	β	<i>adj R</i> ²	<i>F</i>
남학생 집단 (<i>N</i> = 219)	1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 내적 통제성	-.19	-.32***	.10	24.19***
	2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 사회불안	.38	.32***	.10	24.32***
	3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 사회불안	.22	.18**	.27	40.79***
	내적 통제성 → 사회불안	-.88	-.44***		

매개효과 검증단계		<i>B</i>	β	<i>adj R</i> ²	<i>F</i>
여학생 집단 (<i>N</i> = 238)	1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 내적 통제성	-.18	-.36***	.13	36.13***
	2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 사회불안	.43	.37***	.14	38.10***
	3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 사회불안	.29	.25***	.23	37.26***
	내적 통제성 → 사회불안	-.82	-.34***		

p*<.01. *p*<.001.

다음으로, 청소년의 성별로 표본을 분리하여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 간의 관계를 내적 통제성이 매개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남학생 집단의 경우, 첫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매개변인인 내적 통제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게 나타났다($\beta = -.32$, $p < .001$).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종속변인인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게 나타났다($\beta = .32$, $p < .001$). 세 번째 단계에서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beta = .18$, $p < .01$)와 내적 통제성($\beta = -.44$, $p < .001$)은 사회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내적 통제성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은 줄어들어($\beta = .32$, $p < .001 \rightarrow \beta = .18$, $p < .01$) 남학생의 내적 통제성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Sobel(198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내적 통제성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 = 4.05$, $p < .001$).

여학생 집단의 경우, 첫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매개변인인 내적 통제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게 나타났다($\beta = -.36$, $p < .001$).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종속변인인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게 나타났다($\beta = .37$, $p < .001$). 세 번째 단계에서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beta = .25$, $p < .001$)와 내적 통제성($\beta = -.34$, $p < .001$)은 사회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내적 통제성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은 줄어들어($\beta = .37$, $p < .001 \rightarrow \beta = .25$, $p < .001$) 여학생의 내적 통제성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198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내적 통제성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4.11, p<.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내적 통제성 및 사회불안이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 청소년의 내적 통제성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심리적 통제 지각에서 청소년의 성별과 부모의 성별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남학생들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보다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를 더 높게 지각한 반면, 여학생들은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보다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박성연 외, 2008)에서 남학생들이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를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류아영 외, 2014)에서 남자 대학생들의 경우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를 더 높게 지각하였고, 여자 대학생들의 경우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더 높게 지각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이는 우리나라 가정에서는 자녀가 성장하면서 동성부모와의 관계가 긴밀해지고, 부모는 동성의 자녀에게 더 주목하고 자극을 주며 상호작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동성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더 높게 지각했을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정옥분, 2006). 하지만 청소년의 성별과 부모의 성별에 따른 심리적 통제 지각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박신영, 2014; Mantzourannis, Zimmermann, Mahaim & Favez, 2012)처럼 상반되는 결과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내적 통제성 수준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초등학교 대상 연구(신윤희, 2010)에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것과는 유사한 결과이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오현정, 2009)에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내적 통제성

수준이 높았다는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내적 통제성의 성차에 대해 보다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사회불안 수준은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들(기효정, 홍혜영, 2016; 박효정, 2015; Myers et al., 2002)에서 여학생들의 불안 수준이 남학생들의 불안 수준보다 높았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불안 및 우울과 같은 내재화 문제에 더 취약한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Nolen-Hoeksema & Girgus, 1994)와도 연결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사회불안 중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요인에서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불안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경자와 양윤란(2003), LaGreca와 Lopez(199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발달적 관점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사춘기가 상대적으로 빨리 시작됨으로 외모나 행동에 있어서 타인의 판단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심리내적인 과정과 연결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오경자, 양윤란, 2003). 또한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타인과의 관계 및 유대감 형성을 목표로 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는 주장(Rose & Rudolph, 2006)과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불안을 겉으로 노출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제한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남학생들의 불안 수준이 실제로보다 낮게 보고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내적 통제성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사회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내적 통제성을 통해서 사회불안에 간접적인 영향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 자녀의 내적 통제성 수준을 감소시키는 심리적 과정을 통하여 청소년 자녀의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친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강화 정도가 자녀의 내적 통제성에 영향을 미치고(Rotter, 1996), 내적 통제성이 낮은 사람들은 불안 등의 심리적 문제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기존의 연구(한지현, 이진숙, 2007)와 관련 지을 수 있다. 부모로부터 과도한 개입과 통제를 경험한 자녀들은 자신 및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자기 자신이 아닌 외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지각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또한, 자신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지각하게 되므로 자신감을 잃게 되고, 앞으로 다가올 상황을 예측할 수 없게 되어 무기력해지면서 막연한 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또한 Soenens 등(2008)은 부모로부터 심리적인 압박감을 경험한 자녀들은 부모의 규율을 자신의 것으로 내재화시키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청소년기 자녀는 타인과의 상호작용 상황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이처럼 부모의 과도한 통제는 청소년기 자녀의 자율성 발달을 저해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무력감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여 불안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킨다고 볼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부모의 양육 행동을 애정적이고 자율적으로 지각할수록 자녀는 자율성을 가지고 행동하며, 자존감도 증대되어 자기 주변의 일들에 자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각하게 되어 내적 통제성을 발달시킨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불안의 관계에서 특정한 인지적 요인이 매개된다고 설명한 Nanda 등(2012)의 연구와 유사한 맥락이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 간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신념이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조은주와 이은희(2013)의 연구와도 같은 맥락에 있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의 비합리적 신념을 강화시켜 이로 인해 우울 및 불안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내적 통제성의 매개효과가 부-자, 부-녀, 모-자, 모-녀 관계에서 모두 유의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현대사회의 자녀양육 및 부모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과거 전통적인 가족 내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었으며, 이는 자녀양육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아버지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도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면, 어머니는 자녀양육을 담당하는 표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핵가족화·소가족화로 인해 가족 내에서 자녀양육을 담당할 수 있는 성인이 제한되고, 여성의 사회참여로 인해 자녀양육이 여성만의 역할이라는 인식에 변화가 나타났다. 양성적인 부모역할이 점차 증가하여 자녀양육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뚜렷한 역할구분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담당하는 역할의 차이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정옥분, 정순화, 2016). 본 연구에서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 역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정서적 부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대한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내적 통제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연구결과는 교육 및 상담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각각의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사회불안의 예방 및 부모교육을 위한 좀 더 세분화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기 자녀의 심리사회적 문제에 있어서 동성부모 및 이성부모 모두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요인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력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와 더불어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 대한 지각에서 이성부모보다 동성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더 높게 지각한 것과 관련하여 청소년기 부모-자녀관계를 살펴볼 때에 동성 부모-자녀관계 및 이성 부모-자녀관계 모두를 고려하면서도 전자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또한, 청소년의 사회불안을 예방하기 위해서 부모의 양육 행동 등의 환경적 요인뿐만 아니라 인지 요인인 스스로의 통제 신념을 향상하기 위한 개입과 교육도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부모는 심리적 통제 행동을 줄이고, 청소년기 자녀에게 자율성과 독립성을 길러주는 양육 행동을 취해야 한다. 또한, 과도한 개입과 간섭이 아닌 자녀 자신의 통제 가능성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부모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러한 상담 및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향후 청소년들의 사회불안을 예방 및 중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부-자, 부-녀, 모-자, 모-녀로 표본을 분리하여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내적 통제성을 매개로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 대하여 부모와 자녀의 성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것과 같이 청소년과 부모의 성별을 동시에 고려하여 이들의 영향력을 통합적으로 살펴본다면 사회불안의 예방 및 부모교육을 위한 좀 더 전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지적 요인인 내적 통제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청소년의 사회불안에는 내적 통제성 외에 다양한 인지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인지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 2~3학년과 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청소년에게 일반화하여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지역별, 연령별로 더욱 다양한 표집이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 내적 통제성의 관계를 밝히고,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내적 통제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청소년기 사회불안의 예방 및 중재를 위한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강민지, 김광웅 (2008). 사회적 상황에서의 외상경험에 따른 청소년의 사회불안: 또래 관계의 중재 효과. **청소년상담연구**, 16(1), 87-101.
- 강예모, 김정규 (2012).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의식의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12(3), 331-348.
- 기효정, 홍혜영 (2016).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수치심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4(3), 85-99.
- 김소연 (2014). **행동억제기질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사회불안 증상에 미치는 영향: 불안통제감과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희영, 박성연 (2008). 어머니의 완벽주의와 심리적 통제가 남, 여 아동의 완벽주의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1(3), 115-131.
- 남정민, 성현란, 권선영 (2014). 지각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애정적 양육이 남·여 중학생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7(3), 147-170.
- 류아영, 유순화, 윤경미 (2014).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매개효과. **열린교육연구**, 22(3), 135-155.
- 민하영 (1998).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과 내외 통제소재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성연, 이은경 (2009).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 구성요소의 타당성 연구: 분리불안 심리적통제와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아동학회지**, 30(2), 87-106.
- 박성연, 이은경 (2010).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우울성향 및 우울과 자아 존중 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1(6), 87-106.
- 박성연, 이은경, 송주현, Soenens, B. (2008). 부모의 심리적 통제유형이 청소년의 의존심, 자아비난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5), 65-78.
- 박신영 (2014).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과 역기능적 완벽주의의 역할**.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효정 (2015).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남녀 중학생의 자기효능감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경현, 신현진, 문지영 (2010). 부모의 과보호와 아동의 사회불안. **스트레스연구**, 18(1), 19-27.
- 송은영, 하은혜 (2008). 청소년의 외상경험, 완벽주의 성향 및 부정적 사고가 사회 불안에 미치는 영향. **인지행동치료**, 8(1), 41-56.
- 신윤희 (2010).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내외통제성이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안명희 (2010). 어머니의 불안정 성인애착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정서와 심리적 통제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4), 867-885.
- 양재원, 양윤란, 오경자 (2008). 아동, 청소년기 사회불안의 측정: 한국판 청소년 사회 불안척도(K-SAS-A)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4), 861-878.
- 오경자, 양윤란 (2003). 청소년기 사회불안의 발생과 유지의 심리적 기제 1: 행동억제 기질, 부모양육태도 및 외상경험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3), 557-576.
- 오연경, 임정하 (2017).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학교적응 간의 관계: 희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9(3), 1-14.
- 오현정 (2009). **중학생의 내외통제성, 또래관계 및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안진, 민하영 (2001). 시설 보호 아동의 자아정체감 및 내적인 통제 소재와 보육사가 평가한 행동문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2), 97-109.
- 이상주 (2011).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사회불안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초등교육연구**, 24(2), 89-113.
- 이소미 (2002). **지각된 부모 양육 행동이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과 통제소재를 매개변인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정하, 이지윤, 김상미, 박지수, 정윤지 (2015).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내적 통제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22(3), 135-157.
- 장호연, 장진희 (2017).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관계적 공격성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3), 871-891.
- 전민영 (2009).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내외통제성과 학교생활만족도와**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전숙영 (2007). 어머니의 심리통제 및 아동의 행동적 자율성과 자기 통제력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4), 169-179.

정옥분 (2006). **사회정서발달**. 서울: 학지사.

정옥분, 정순화 (2016). **예비부모교육**. 서울: 학지사.

조은주, 이은희 (2013).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 비합리적 신념의 매개역할. **한국청소년연구**, 24(1), 35-70.

한지현, 이진숙 (2007). 시설보호아동과 일반아동의 내외통제소재와 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우울의 관계. **아동학회지**, 28(6), 155-168.

홍영근, 이경숙 (2013). 사회공포 및 사회불안 관련 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2011년에서 2013년 연구를 중심으로. **정서·행동장애연구**, 29(4), 295-310.

Barber, B. K. (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6), 3296-3319.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Clark, D. M., & Wells, A. (1995). *A cognitive model of social phobia*. New York: Guilford Press.

Davidov, M., & Grusec, J. E. (2006). Untangling the links of parental responsiveness to distress and warmth to child outcomes. *Child Development*, 77(1), 44-58.

Detweiler, M. F., & Albano, A. M. (2001). Covert symptoms of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in children: A case study. *Journal of Cognitive Psychotherapy*, 15(2), 75-86.

Hackmann, A., Clark, D. M., & McManus, F. (2000). Recurrent images and early memories in social phobia.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8(6), 601-610.

Kashdan, T. B., & Steger, M. F. (2006) Expanding the topography of social anxiety: An experience-sampling assessment of positive emotions, positive events, and emotion suppression. *Psychological Science*, 17(2), 120-128.

Kim, L. S., Sandler, I. N., & Tein, J. Y. (1997). Locus of control as a stressor

- moderator and mediator in children of divorc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5(2), 145-155.
- LaGreca, A. M., & Lopez, N. (1998). Social anxiety among adolescents: Linkages with peer relations and friendship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6(2), 83-94.
- Mantzourannis, G., Zimmermann, G., Mahaim, E. B., & Favez, N. (2012). A further examination of the distinction between dependency-oriented and achievement-oriente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DAPCS with French-speaking late adolescent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1(5), 726-733.
- McLeod, B. D., Wood, J. J., & Weisz, J. R. (2007). Examining the association between parenting and childhood anxiety: A meta-analysis. *Clinical Psychological Review*, 27(2), 155-172.
- Morrissey, K. M., & Werner-Wilson, R. J.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out-of-school activities and positive youth development: An investigation of the influences of communities and family. *Family Therapy*, 32(2), 75.
- Myers, M. G., Stein, M. B., & Aarons, G. A. (2002). Cross validation of the social anxiety scale for adolescents in a high school sample.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6(2), 221-232.
- Nanda, M. M., Kotchick, B. A., & Grover, R. L. (2012).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childhood anxiety: The mediating role of perceived lack of control.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1(4), 637-645.
- Nelson, D. A., & Crick, N. R. (2002).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Implications for childhood physical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B. K. Barber (Ed.),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ce* (pp. 161-189).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Nolen-Hoeksema, S., & Girgus, J. S. (1994). The emergence of gender differences in depression during adolescence. *Psychological bulletin*, 115(3), 424.
- Petit, G. S., Laird, R. D., Dodge, K. A., Bates, J. E., & Criss, M. M. (2001).

- Antecedents and behavior-problem outcomes of parental monitoring and psychological control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2(2), 583-598.
- Reed, T. J., Goldstein, S. E., Morris, A. S., & Keyes, A. W. (2008). Relational aggression in mothers and children: Links with psychological control and child adjustment. *Sex Roles*, 59(1-2), 39-48.
- Rogers, K. N., Buchanan, C. M., & Winchell, M. E. (2003). Psychological control during early adolescence: Links to adjustment in differing parent/adolescent dyads.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3(4), 349-383.
- Rose, A. J., & Rudolph, K. D. (2006). A review of sex differences in peer relationship processes: Potential trade-offs for the emotional and behavioral development of girl and boys. *Psychological bulletin*, 132(1), 98-131.
- Rotter, J. B. (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General and applied*, 80(1), 1-28.
- Schlenker, B. R., & Leary, M. R. (1982). Social anxiety and self-presentation: A conceptualization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92(3), 641-669.
- Sobel, M. E. (1982). *Sociological methodology*. Washington, DC: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 Soenens, B., Luyckx, K., Vansteenkiste, M., Luyten, P., Duriez, B., & Goossens, L. (2008). Maladaptive perfectionism as an intervening variable between psychological control and adolescent depressive symptoms: A three-wave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2(3), 465.
- Soenens, B., & Vansteenkiste, M. (2007). Distinguishing among types of psychological control: Separation-anxious versus achievement-oriented psychological control. In A. Assor (Chair), *Disentangling the construct of parental control: Conceptual and measurement issues*. Symposium conduc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on Child Development (SRCD), Boston, MA.
- Stolz, H. E. (2005). Toward disentangling fathering and mothering: An assessment of relative importanc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7(4), 1076-1092.
- Van Ameringen, M., Mancini, C., & Farvolden, P. (2003). The impact of anxiety

disorders on educational achievement.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7(5), 561-571.

Verduin, T. L., & Kendall, P. C. (2003). Differential occurrence of comorbidity within childhood anxiety disorders.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2(2), 290-295.

ABSTRACT

The effects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n adolescent social anxiety: The mediating effect of the locus of control

Choi, EunKyung* · Lim, Jungh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adolescent social anxiety, as mediated by the locus of control of adolescents.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457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the Seoul and Gyeonggi areas. The data thus collected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wo-way ANOVA with repeated measures, *t*-tests, Pearson's correlation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 first, female adolescents perceived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more highly than p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Males adolescents perceived p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more highly than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No gender difference was found in the level of internal locus of control. Female adolescents reported higher social anxiety than male adolescents. Second, the internal locus of control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adolescent social anxiety. These results may prove to be very useful for counseling and education programs aimed at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social anxiety of adolescents.

Key Words: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locus of control, social anxiety

투고일: 2018. 5. 17, 심사일: 2018. 8. 3, 심사완료일: 2018. 8. 13

* Korea University